

4월 20일 월요일 / 니카라과 (32위)

최근 니카라과에서는 6개월간 구금되었던 루디 팔라시오스(Rudy Palacios) 목사가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가택 연금과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의 탄압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60여 명의 시민이 부당하게 갇혀 있고, 소셜 미디어에 의견을 올리는 것조차 체포의 구실이 될 만큼 교회와 성도들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감시 속에서 사역하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대대한 용기를 주시며, 억압이 사라지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4월 21일 화요일 / 카자흐스탄 (45위)

세 명의 젊은 여성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누르(Ainur) 자매는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뒤 강제로 이혼당했고, 경찰 간부인 아버지를 둔 쿠미시(Kumish) 자매는 실시간 감시와 더불어 교회에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디나(Madina) 자매 역시 부모의 위협 때문에 공동체와 단절된 채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폭력과 고립, 그리고 감시 속에서도 이 세 자매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4월 22일 수요일 / 인도 (12위)

마니푸르주에서는 2023년 발생한 폭력 사태의 여파가 2026년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재민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전역에서 극단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일조차 반개종법을 악용해 범죄로 낙인찍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전역의 성도들이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공격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23일 목요일 / 이집트 (42위)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대다수 무슬림 사회 속에서 여전히 '이등 시민'으로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농촌 지역과 마을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공직이나 안전한 일자리에서 배제된 채, 위험하고 생계유지가 힘든 제한된 직종에만 종사하며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무시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고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집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 리비아 (9위)

2025년 5월 수도 트리폴리를 휩쓴 폭력 사태가 보여주듯 극심한 혼란

과 무질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수가 매우 적어 신앙이 노출되는 즉시 박해의 표적이 되는 고립된 환경이며, 리비아를 거쳐 가는 이주민 성도들은 불안정한 체류 신분과 신앙으로 인해 범죄와 차별이라는 이중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지내는 고립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25일 토요일 / 이라크 (18위)

이라크는 과거 IS가 남긴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아픔 속에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성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가혹한 핍박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며, 2025년 4월에는 IS 연루자에 의한 기독교인 공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여전히 이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26일 주일 / 아프가니스탄 (11위)

자키(Zakie)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주위의 극심한 멸시와 고립을 견뎌야 했습니다. 급기야 길거리에서 남편이 총격을 당하는 비극을 겪은 후, 갓 난아기와 함께 중앙아시아로 피신해 힘겨운 난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아픔을 겪은 자키가 하나님의 위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프간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4월 27일 월요일 / 카자흐스탄 (45위)

현재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종교 규제법으로 인해 교회와 지도자들이 늘 무거운 압박 속에 놓여 있으며, 성경과 기독교 서적의 유통마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전해져 그들이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4월 28일 화요일 / 베트남 (55위)

현재 시골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개종을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마을 공동체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한 교회들은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시 단속과 급습의 공포 속에서 위태롭게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불시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시골 지역 성도들의 삶을 통해 마을 전체에 복음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4월 29일 수요일 / 카메룬 (37위)

카메룬 북부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습격이 끊이지 않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마무드(Mamoud) 목사와 함자(Hamza) 목사는 매주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지역을 오가며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고 있으며, 많은 성도 또한 극심한 경제적 빈곤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자립 프로젝트를 통해 성도들이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30일 목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로빈(Robin)과 그의 어머니 몰리(Moly)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슬람 폭도들의 습격으로 교회와 성경이 소실되는 비극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신앙을 버린 채 가족을 떠났습니다. 현재 남겨진 로빈과 몰리는 극심한 빈곤과 고립 속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들이 고난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박해의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6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25(방배동), 2층 202호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종량,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286

2026년 04월
VOL.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시편 46:1 -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Doors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4월 1일 수요일 / 예멘 (3위)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칼레드(Khaled)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아버지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위기 속에서도,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의 제자 훈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후, 예멘에 남아 교회를 세우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그는 교회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해 목회 코칭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는 예멘의 비밀 신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2일 목요일 / 멕시코 (30위)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복음의 불모지 '침묵의 원'(Circle of Silence)에는 선교사 부모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열 살 소녀 알리사(Alissa)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웃들에게 반려동물이 독살당하고 여동생은 병을 얻었으며, 알리사 또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서 용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알리사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린 소녀의 용기 있는 삶을 통해 척박한 멕시코 땅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4월 3일 금요일 / 아프가니스탄 (11위)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통치 아래 여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리아나(Ariana)는 여성들이 발각될 경우 아이들조차 살해당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전하며,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아프간 여성들과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4월 4일 토요일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4개국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 8명 중 1명이 박해 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단, 나이지리아, 말리는 기독교인 대상 폭력이 극에 달한 지역입니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상황이 변화하길 기도합니다.

4월 5일 주일 / 북한 (1위)

올해 북한 당국에 의해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비좁고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가혹한 심문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부모의 갑작

스러운 체포로 홀로 남겨진 어린 자녀들은 보호자 없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하교회 성도들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의 속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에게 건달 힘을 주시고, 심문 과정 중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홀어진 가족들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4월 6일 월요일 / 알제리 (20위)

현재 알제리는 거의 모든 개신교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거나 예배가 중단되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분들은 본인은 물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과 함께 위협에 처할 정도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지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방해 없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7일 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2025년 방글라데시는 총리 사임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들을 폭력적으로 박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받으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상처 입은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가 임하고, 개종한 성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으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8일 수요일 / 나이지리아 (7위)

지난 1월 18일 주일 오전, 나이지리아 카주루 지역의 교회들에 무장 테러범들이 난입하여 예배 중이던 성도들을 납치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 환자들까지 숲으로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남겨진 가족들은 밤마다 이어지는 공격을 피해 병든 아기를 안고 숲에서 노숙하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치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진 ‘쿠르민 왈리 공동체’가 회복되며, 이 땅의 잔인한 폭력이 속히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4월 9일 목요일 / 부탄 (34위)

부탄은 불교 신앙을 국가 정체성의 중심으로 삼고 있어, 개종한 신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큰 시련과 사회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긴급 지원으로 현지 교회들을 돕는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소망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부탄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 10일 금요일 / 북한 (1위)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11일 토요일 / 브루나이 (50위)

샤리아(이슬람) 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브루나이에서, 이슬람을 떠나 개종한 신자들은 배교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이슬람 교육으로 인해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12일 주일 / 시리아 (6위)

시리아의 월드와치리스트 박해 점수는 지난해 78점에서 올해 90점으로 12점 급증하며 순위가 18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 폭력 점수도 7.0에서 16.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교회 공격과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27명이 사망했으며, 기독교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수십만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수치로 드러나는 극심한 박해와 폭력 속에서 시리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고, 생명과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며 더 이상의 희생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4월 13일 월요일 / 부르키나파소 (16위)

2022년 쿠데타 이후 군사 정부의 통치를 받는 부르키나파소는 민정 이양 약속이 지연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주기적인 공격까지 이어져 수많은 기독교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안정이 찾아와 당국이 국민을 성실히 보살피고, 폭력을 일삼는 극단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진리 앞에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4월 14일 화요일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2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끝없는 내전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성도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며, 특히 자매들은 분쟁 중에 자행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기적 같은 평화를 허락하시고, 극심한 범죄로 고통받는 자매들의 영혼을 친히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15일 수요일 / 이란 (10위)

현재 이란은 시위와 정부의 탄압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시

위 중 친구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순직한 세 딸의 아버지 모센(Mohsen)을 비롯해 여러 성도가 목숨을 잃었고, 당국은 장례식조차 금지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 활동을 이유로 온 가족이 투옥되는 등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을 잃은 모센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안전히 석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16일 목요일 / 콜롬비아 (47위)

2025년 콜롬비아는 무장 단체 간의 무력 충돌이 재발하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마약 갱단이 장악한 지역과 개종을 금기시하는 원주민 공동체 내의 신자들은 생명의 위협과 억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고립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 17일 금요일 / 에리트레아 (5위)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에리트레아의 악명 높은 교도소에는 단순한 신앙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남겨진 가족들도 큰 위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4월 18일 토요일 / 르완다 (62위)

최근 르완다 정부는 예배당 규제법을 빌미로 현재까지 1만 개가 넘는 복음주의 교회를 강제로 폐쇄했으며, 단순히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가메(Kagame) 대통령은 교회를 '식민지의 잔재'나 '도둑의 소굴'로 비하하며 폐쇄된 교회를 다시 열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지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4월 19일 주일 / 소말리아 (2위)

소말리아의 지하교회 지도자 아웨이스(Aweis)는 과거 14명의 성도와 함께 비밀리에 예배 드렸으나, 불과 2년 만에 12명이 순교하는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일상적인 살해 위협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환경이지만, 아웨이스는 소말리아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판단을 뒤로한 채 현재 성경 번역과 지도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아웨이스와 사역자들이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